

제 1회 청년수의 아카데미

현재의 생각을 통한 미래의 희망 발견

윤정호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행사가 열렸던 충남대학교(수의과대학에서 기숙사로 가는길)

2006년도 학생회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1월 말, 생각지 못했던 일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바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서 주최하는 청년수의 아카데미가 그것이었다. 올해가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생소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행사가 열리는 2월 11일, 12일 전·후에 수환(수의봉사활동), LT,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와 같은 일정들이 가득 차있어서 체력적, 시간적으로 많은 강행군을 해야 했기에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학생회에서 맡은 역할이 다른 것도 아닌 '정책국장'이었고 평소에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라는 단체와 그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가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청년수의 아카데미가 열리는 장소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이었다. 그 날의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동안 놀러간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동하는 사이 행사의 일정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김진석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 단체의 연사분들의 강연과 우리들의 토론시간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다. 배우고 느끼려 간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일정에 괜스리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3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선배님들이나 동기들, 각종 매체를 통해 수의사, 그리고 수의계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주워 들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작지 않았다.

일정표 상의 시간에 맞춰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도착하려고 했지만, 어찌다 보니 결국 좀 늦게 행사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도착하니 벌써 김진석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어 있었고 강연을 놓쳤다는 아쉬움과 늦었다는 부끄러움이 마음속에서 교차되었다.

행사기간동안 많은 강연과 토론이 반복되었기에 지금부터는 강연과 토론에 대해 주제별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다.



건국대학교 김진석 교수

첫 번째 강연 : 동물복지-국민건강, 수의사 (김진석 교수)

강연에 좀 늦긴 했지만, 다행히 김진석 교수님께서 평소 수업시간에 종종 동물복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강연 내용에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동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동물복지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집단이 수의사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와중에도 우리의 짧은 지식과 미숙한 손놀림, 반복되는 실험·실습에 의한 무감각 등에

의해 나머지도 벌써부터 동물의 고통과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졌지 때문이다.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졸업하게 된다면 경제적 문제, 편의문제 등에 의해 타성에 젖어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정말 그런 경우가 싫지만 내가 바로 그 상황임을 요즘 조금씩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 교수님의 강연은 나를 반성하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HAB(Human-AnimalBond)를 통해서 동물과 사람의 유대를 느낄 수 있었고, 동물을 중심으로 동물을 사람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고가 필요한 듯 했다. 하지만 수의사는 동물의 복지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있다는 말씀에서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수의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여태껏 생각했던 막연하고 무조건적인 동물 복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대목이었다. 이 외에도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었고 그것에 따르는 어려움, 윤리적 갈등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교수님의 강연이 양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 말씀하신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일부분을 통해서라도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해 주셨고, 앞으로 복지·권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여운을 남겨 주셨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을 통해 많

은 돈을 벌 수 없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두 번째 강연 : 수의사 전문직 프로젝트 (국건수 오용관 정책 1국장)

오용관 수의사님이 말씀하신 강연은 ‘수의사’라는 전문직에 관한 것이었다. 강연에서는 수의학이라는 학문과 수의사라는 직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문직의 의미와 그것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에 따르는 수의사의 사회적, 윤리적 의무 및 수의사, 환축, 축주와의 관계(수의료 서비스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냥 막연히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온 ‘수의사’라는 직업을 다른 일반직 및 의사, 변호사, 신문기자와 같은 전문직과 비교하며 전문직과 일반직의 차이 및 전문직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셨다. 전문직의 요건이라든지 지식의 독점, 자율성, 이타성과 같은 전문직의 특성은 우리의 직업을 근본부터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아직 수의사라는 직업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문제가 많고 완전한 전문직이 되려면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다루는 환축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의사인가, 보호자인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서 당연히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환축의 상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수의사’가 대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들의 생각은 환축의 보호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생각이라는 들면서 강연이 끝났다.

세 번째 강연 : 수의권이란 무엇인가? (국건수 흥하일 위원장)

수의사의 권리, 그것이 수의권이다. 이에 대해서는 흥하일 국건수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현재의 수의권은 많이 암담한 것이 사실이었다.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및 내부 윤리성의 부재, 수급 불균형에 의한 치열한 경쟁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 미비 등에 의해 우리의 수의권은 휘청거리고 있었다.



국건수 오용관 정책 1국장



국건수 흥하일 위원장

홍하일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러한 상황 타파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혁을 말씀하시며 투쟁, 협상, 로비의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셨다. 덧붙여 투쟁을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협상을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정책이, 로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하셨다. 이 3박자가 맞을 때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내부 의식화 → 사회 이슈화 → 법/제도화' 의 3단계 계획이 실행되어 우리의 수의권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 우리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처방권에 대한 설명, 동물약품의약분업 등 및 이에 따르는 수의료 서비스 체계 및 축·수산인과의 관계 등을 들어보았으며 그것들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현재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 자가진료권, 공무원 처우 개선, 수산질병 관리사, 약사법 개정 등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것들이다. 이 강연에서는 여태껏 각각에 대해 생각했던 문제를 '수의권' 이라는 중심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었던 듯 하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행동 해 보자' 이러한 다짐이 내 가슴에 남았다.

네 번째 강연 : 미래의 수의사에게 (한국 동물복지협회 조희경 회장)

네 번째 강연은 행사 둘째 날인 2월 12일 오전에 시작되었다. 조희경 회장님께서서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을 포함한 동물 복지 활동, 상담·교육 활동 등을 하고 계셨다. 사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수의사의 인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수의사' 들과도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동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랑을 우리 자신이 가져야겠지만 말이다. 특히 경견·경마와 동물원 등에서 이용되는 동물이라든지, 돈벌이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농장동물의 복지 문제 등은 나 자신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라 부끄럽기까지 했다. 대동물의 자가 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서 대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고, 동물원에 가서 즐겁게 구경하면서 그들의 환경에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회장



이성환동물병원 이성환 원장

대해 바꿀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마장에 가서는 ‘어떻게 배팅을 해야 돈을 딸 확률이 높을까’란 생각만 했었다. 우리의 권리와 즐거움을 생각하기 전에 동물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듯 하다. 물론 학교에서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섯 번째 강연 : 수의사로서의 삶 (이성환동물병원 이성환 원장)

이성환 원장님께서서는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일단 수의사의 진로의 변화,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된 자신 및 동물병원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 특히 POMA(Problem Oriented Medical Approach)적 문제 접근 방식은 좀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익숙해진다면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었다. 원장님께서서는 이 외에 우리들의 질문 시간을 받고, 20여 가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셨는데, 그 질문에는 수의사의 수입, 수의계의 인적구조 미비, 기존 개업자의 신규 진입자에 대한 배타성, 수의사의 수의학적 자질 미달에 대한 문제, 체계화 되지 않은 진료수가, 비 진료 수입 의존도 증가, 대학 교육의 미비 등과 같은 현재 수의사가 처한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 수의계의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 대답을 들으며 선배 수의사님의 생각 및 현재의 상황,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강연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질문을 깊이 있게 오랫동안 못 들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

우리들의 토론 및 뒷풀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3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다. 우리는 왜 수의사가 되었는가?, 어떤 수의사가 될 것인가?, 청년 수의의 길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수의사가 되기보다는 생명공학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수능을 보고 나서 ‘수의사’라는 직업이 생명공학을 포함해 많은 진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원서를 넣었다. 물론 솔직히 점수에 맞춰 원서를 집어넣기도 했다. 그리고 수의학과에 들어와서 여러 수의계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암울하고 나의 희망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암울하게만 보기는 희망도



이성환 원장과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



조별토의



조별토의

있기 때문에 본과 2학년으로 올라가는 현재는 많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철없던 예과시절의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은 좀 접고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이나마 생겼다. 일단 성적을 신경 쓸 것이고, 성적 이외의 여러 분야의 지식 및 어학실력도 쌓는 게 내 목표다.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내 희망이다. 아직 부끄럽게도 진로를 확실히 정하진 못했지만 수의사의 진로는 다양한 만큼 그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큰 단점도 있지만 말이다. 나는 그 깊이 없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테지만... 한 우물만 파며 무엇인가를 이루는 수의사가 되는 것이 내 바람이다. 우리조의 다른 학교 학우들의 생각 또한 매우 의미있었다. 대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학우 분,

식품 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분 등 나름대로 각자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과정의 계획까지 이미 세워놓으신 분도 있었다. 부럽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희망도 보였다.



뒷풀이시간(왼쪽 · 저자)

청년수의의 길을 말할 때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자신의 학교와 수의학에 대한 이야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다른 학교의 장점 및 단점, 차이점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수업시간에 느끼는 감정(주로 동물 실습을 하며 느끼는 감정..)에 대해 허심탄회하

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만 그런 얘기를 하다 다른 학교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니 환경 및 생활, 생각 등이 신선했고 다양했던 것 같다. 또한 노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자리(자발적으로 만든것은 아니지만..)에서 얘기를 하였기에 그렇게 진지하고 깊은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본다. 토론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무엇인가 뭉클했고,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인 토론이 끝난 뒤에는 다함께 모여 간단하게 뒷풀이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술과 안주를 통해 그동안 무거웠던 분위기를 좀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조별로 나와 사회자가 나름대로 급조한 게임(힘 게임)을 하였는데 내가 그 게임에서 어리벙벙하게 1등을 하게 되어 나름 수의대 '힘짱'이라는 민망한 호칭을 얻기도 하였다. 시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짧은 만큼 아쉽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위의 내용들이 '청년 수의 아카데미'의 모든 행사 일정이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5개의 강연과 3개의 토론주제, 그 외종의 뒷풀이... 짧은 기간에 비해 학생들이 소화해야하는 지식의 양과 생각의 깊이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 첫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 및 행사 내용의 구성 또한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방학 중에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을 보고 그들과 얘기해 보면서 내가 느낀 바로는 그들에게 그러한 일정상의 무거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신 국건수 관계자 분들께서도 그들을 보시며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피로는 조금이나마 풀리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의학 및 수의사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과 얘기하며 수의대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을 들으며 나를 반성할 수 있었고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막연히 현실 문제에만 급급해서 고민하던 나에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 행사였던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이려면, 첫 행사이기에 행사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조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점을 들고 싶다. 덧붙여 전반적으로 일정이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었던 것이 아쉽다. 행사를 준비하신 국건수 선배님들 및 강연을 준비해 주신 연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여러 수의학과 학우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다음번 청년 수의 아카데미에는 올해 보다 훨씬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